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김현주 작가 '붉은 모란 주머니' 출간
미암 유희춘·부인 송덕봉·첩 방긔덕, 각각의 시점으로 풀어내

꿈 이루기 위해 뜨겁게 살다 간 여인 '방긔덕' 이야기

역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은 사실과 상상력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당대의 역사를 상상력으로 풀어내 오늘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오랜만에 역사를 토대로 한 장편 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어느 겨울, 우연히 '미암일기'를 발견했다. 희열을 느꼈다. 눈 내리는 밤, 틈틈이 미암 선생의 일기를 읽는 일은 새로운 충격이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1993년) 출신 김현주 작가가 첫 장편소설 '붉은 모란 주머니' (다인숲)를 펴냈다.

작품은 16세기 선조 임금의 경역관이었던 미암 유희춘과 부인 송덕봉, 첩 방긔덕의 이야기를 각각의 시점으로 풀어낸다. 저마다의 관점으로 풀어낸 소설은 디테일한 묘사와 재미를 선사한다.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온 작가는 예상대로 소설집을 펴냈다는 얘기를 꺼냈다. 사실 작가는 어떤 소설을 쓰고 있거나 작품집을 펴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동안 김 작가는 자신만의 '장작의 방'에서 역사 속 인물들과 역동적인 교류를 해왔던 것이다.

"오래전 '담양송순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이 소설은 깊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작품은 채 완성되지 않은 느낌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한 지인의 출판물 해보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소설을 새롭게 완성하기까지 지인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

이번 작품은 제6회 담양송순문학상 수상작 '연계정 대숲소리'를 새롭게 고친 소설이다. 언급한대로 소설은 미암 유희춘과 그의 부인 송덕봉, 첩 방긔덕의 이야기가 메인 줄거리이다. 소설은 미암의 일기로부터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미암 선생의 일기는 해배 후부터 시작되어 죽을 직전까지 계속된다. 기록 정신에 철저한 그의 방대한 독서량, 정치 철학,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의 결과물이다. 미암의 인권 존중과 겸손함은 가정사에도 드러난다. 부인 송덕봉을 지음(知音)처럼 존중하고 사랑



김현주 작가

하면서도, 후실 방긔덕과 서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 끝까지 애쓴다."

작가는 소설을 쓰면서 미암 선생의 정실부인 송덕봉과 대비되는 인물, 후실 방긔덕의 삶에 상상의 축수를 세웠다. 같은 여성이지만, 송덕봉과 천지 차이였던 면들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을 거였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 자주 담양 대덕을 찾았다. 머릿속에 분명한 서사의 줄거리가 잡히기 전, 작가들은 모티브가 될 법한 공간을 자주 찾는다. 김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암 선생과 덕봉 선생의 쌍봉에는 청명한 하늘 아래 빛나는 햇살이 따뜻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아래, 소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가난한 무덤이 눈에 들어왔다. 풀이 성글게 돌아있어 쓸쓸했다. 평생, 사랑을 믿었던 여성 방씨의 묘지였다."

작가는 이미 여성 방씨의 묘지에서 전체 소설의 가닥을 추렸을 것이다. 담양송순문학상에 이름을 올렸

을 당시, 문순태 소설가로부터 '방긔덕을 살리면 더 좋겠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방씨의 묘는 상상의 부싯돌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는 "방긔덕이 딸 넷을 모두 노비에서 속량시키고 자신도 속량되기를 바랐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며 "한평생 미암 선생을 해바라기처럼 사랑했던 여성,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인물로서의 방긔덕을 그렸다"고 부연했다. 어쩌면 방긔덕은 작가의 표현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뜨겁게 살다 간 여인" 그 자체였는지 모른다.

소설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미암의 관직생활과 가정사, 부인 송덕봉과의 관계다. 여기에 미암의 첩 방긔덕이 양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서서히 역동성을 부여한다. 굿덕의 신분 상승 욕구는 정실부인 송덕봉이 건네준 '붉은 모란 주머니'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 주머니는 후일 '기적옥사'에 엮여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작가는 현재 재희운 작가를 비롯해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아시아문학읽기'를 하고 있다. 낯설었던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는 즐거움이 크다. 소설과 관련된 읽기와 창작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작가로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물었다. 작가는 '소설적'인 답을 내놨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러면 소설책을 읽기 시작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는 어떤했을까. 소설을 읽다가 어떤 목소리가 나를 강하게 끌어당길 때, 위로를 받고 한다. 역사소설을 펼치면, 어떤 목소리가 나를 일깨울 때가 있다. 과거, 먼 시대를 살아냈던 인물들의 심정에 공감하게 된다. 인간의 일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다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김 작가는 1998년 개간지 '문화와 사회'로 등단했으며 창작집 '물속의 정원사'와 산문집 '네 번째 우러낸 찻물'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를 잇는 혼'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민중의 애환을 씻어내다

(사)박병천가무악보존회 초청 공연... 26일 국립남도국악원

민중의 애환과 역운을 씻어내는 '씻김굿'을 의례가 아닌 국악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국악원)은 토요일 상설공연 (사)박병천가무악보존회 초청공연 '대를 잇는 혼'을 오는 26일(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도군을 대표하는 예술인 중 하나인 박병천 명인의 다양한 음악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박병천 명인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의 기능보유자이며, 생전 무용과 씻김굿 등의 분야를 무대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먼저 박병천 명인의 자제이자 부산대 국악과 교수를 역임한 박환영 명인의 대금연주가 예정돼 있다. 박미옥, 박성훈 등도 함께 출연한다.

간단한 삼차림 앞에서 소원을 비는 '비손'을 주제 삼아 '산자를 위한 축원 덕담'이 막을 연다. 박병천 명인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데서 의미를 더한다. 이어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현

수'를 모티브로 한 '현수 음악', 화복을 맡은 신 제석님께 비는 '제소춤'도 만나볼 수 있다.

'액막이'라 불리며 흥한 액과 살을 풀어내는 '액풀이'도 준비돼 있다. 민속의례와 세시 풍속의 영역이던 '액풀이'를 공연의 영역으로 옮겨와 모진 운세를 털어내고, 축원 소리를 울려 명과 복을 비는 구성.

박병천 명인의 작은할아버지인 박종기 명인의 대금 가락을 엮어낸 '박종기류 대금산조'를 박환영 명인이 들려준다. 중중모리가 없는 산조의 전형으로 고수의 역할이 돋보이는 곡이다.

끝으로 진도의 흥을 담아낸 '박병천류 북춤'도 구성됐다. 비나놀이, 무동놀이, 상고, 장구놀이 등의 개인놀이 레퍼토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고인의 작품 중에는 양손에 채를 쥐고 추는 '진도북춤(진도북놀이)'도 있어 기대를 모은다.

무료 공연. 자세한 내용은 국악원 누리집 또는 장악과에 문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노은영 작 '물길의 길-조작된 낙원'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

9월 19일까지 백화점 1층 갤러리...구남컬렉티브 등 8명 작가

1996년 시작해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해 실질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자리잡았다. 수상작가들에게는 상금 및 초대전 개최, 신세계 갤러리 기획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 다양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그동안 수상 작가들은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로써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해왔다.

제24회 광주신세계미술제의 최종 심사를 위한 1차 선정작가전이 오는 9월 19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심사를 통해 엄선된 8명의 대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참여 작가는 구남컬렉티브, 노은영, 박정민, 서영기, 유



박정민 작 '다면적인 끝맺기'

지원, 이수린, 임다인, 임용현 등이다.

제24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는 총 100명의 작가가 응모했다. 심사는 작가들이 제출한 작품 포트폴리오와 전시기획안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부 심사위원회는 개별 온라인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7월 19일 진행된 협의 심사를 통해 1차 선정작가 8명을 선별했다.

전시기간 중 2차 작품심사와 개별 면담을 끝으로 최종 수상자 2인을 결정한다. 수상 작가에게는 대상 1000만 원과 신진작가상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울러 수상작가 2인은 2024년 가을 별도의 창작지원금 지원을 통해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백지홍 광주신세계 큐레이터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준 모든 작가와 광주신세계미술제에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지역 미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미술 성장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람료 무료, 개관시간 월-목(오전 10시30분-오후 8시), 금-일(오전 10시 30분-오후 8시 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MC·개그맨' 지식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 위촉

MC이자 개그맨인 지식진이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명예 홍보대사로 지식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C, 개그맨, 가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식진은 틱톡과 유튜브 등 SNS에서 흥미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젊은 세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SBS '런닝맨'을 비롯해 티빙 '브로 앤 마블' 등에 출연 중이며, MSG워너비 M.O.M 멤버로 앨범과 공연 무대에서 팬들과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지식진은 다양한 창의적 활동과 함께 국내외 팬덤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로는 소프라노 주수미와 가수 알렉사(2021년), 유해진(2019년), 안성기(2017년), 임형주-기보배-미스코리아 김서연(2015년), 유노윤호·보아(2013년), 엄홍길·장미희(2011년) 등이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비엔날레전시장 등 광주 일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식진



은암미술관 '썸머콜로키엄' 25일 제2전시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미술관)은 2023 썸머콜로키엄 '독일문화 가로지르기'를 오는 25일(오후 1시) 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타넵포인트' 전시의 연계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전국의 '독일문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독일 미술, 음악, 철학 지식을 집담회 형식으로 나눈다는 계획. 진행은 생진기 전남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강현국(고려대) 교수는 '여섯 개의 화제로 소설을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독일 교양소설의 호시 격인 괴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백승영(홍익대) 교수가 '니체, 삶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니힐리즘(허무주의)을 넘어서는 니체 철학의 정수를 시민들과 나눈다. 또 최영태(전남대) 교수는 동서독 전쟁사와 통일 과정

의전반을 김대중정책과 겹쳐보는 '독일 역사의 흐름을 읽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윤익(아트광주23 총감독)은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20세기 독일의 전위적 화가 요셉 보이스의 작업물을 통해 인간의 이성주의에 화두를 던진다.

음악 공연도 준비돼 있다. 슈베르트의 '넷가에서'를 바리톤 조재경(호남신학대) 객원교수가, 슈만의 '간구의 기도'와 '두 척탄병'을 피아니스트 김현옥(달빛오디세이 대표)가 들려준다.

미술관 정여석희 학예실장은 "광주시민에게 독일문화를 소개하고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한독 상호 이해관계가 돈독해지고 문화교류도 증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